

2016년 12월 14일, 표선면 가시리 한신화씨 댁, 송정희 조사.
한신화(여, 1921년생, 표선면 가시리)

[제보자] 예편 할망이 막 힘이 썰여. 힘이 썰니깐 또 남즈 하르방은 조그만헤여. 응. 조그만헤난에. 하르방이 할망이 하르방을 심어네 지붕 우터레 혹 앓안 데깁 거라. 경허난

“하르방 무사 그 지붕 우이 올랐어?”

허난

“호박 트레.” (웃음)

할망 썰연 데껴 불었지만은 부끄로완. 게난

“무사 그 지붕 우이 올랐어?”

“호박 트레.” (웃음)

- 핵심어 : 할망, 하르방, 힘, 호박, 지붕